

# 동시대 미술이끄는 청년작가 한자리에

‘컨템포러리 영 아티스트 인 남도 2019’展

이정기·엄기준·윤세영 등 15인  
다음달 30일까지 담빛예술창고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담빛예술창고가 기획한 ‘컨템포러리 영 아티스트 인 남도 2019’(Contemporary Young Artist in Namdo 2019) 전시를 통해서다.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담양군·읍 객사7길 75)는 올해 첫 기획전 ‘컨템포러리 아트 인 남도 2019’전에 이어 ‘컨템포러리 영 아티스트 인 남도 2019’전을 다음달 30일까지 마련한다.

첫 기획전이 현재 국제 활동과 경쟁력을 갖춰 지역을 대표하고 미래 미술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예술가를 초대했다면, 이번 전시는 그 뒤를 이어 동세대 예술가이지만 향후 가능성과 성장을 기대할 만한 청년작가 15인을 초대했다. 참여작가는 김단비, 김명우, 김진화, 서영기, 설박, 송지운, 양나희, 엄기준, 유지원, 윤세영, 윤준영, 이세현, 이재호, 이정기, 조은솔이다.

각 작가는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작품을 출품한다. 평면 회화부터 사진, 조각·설치 등 장르부터 주제, 소재까지 모두 다양하며, 총 6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첨단 기술과 전자매체를 통한 시각적 자극이 그 강도를 더해 가는 오늘날의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각 작품에 담아낸다.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예술계의 보수적인 형태를, 한국 미술계의 틀 속에 안주하기를 거부



송지운 작 '구름다리에서의 기억' /담빛예술창고제공

하는 젊은 세대의 혼돈과 방황, 그러나 동시에 기성의 권위를 온몸으로 수용하며 성장하는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물음 등에 대한 해석을 나름의 작품으로 풀어낸다.

양조롱 현대미술사 박사는 전시 평론글에서 “담빛예술창고 전시실의 대작 60여점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체현하는 것, 지속적으로 사유하고 변형시키며 자신만의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 의문을 갖고 탐구한 현상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표출되는 것 등 이 전시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수많은 시도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겨울 기자

## “역할극·스토리텔링으로 현대음악 만나요”

23일 광주시향 청소년음악회  
백운학 지휘·배우 이영환 초청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청소년음악회 ‘클래식이 정말 좋아요! 현대음악 편’을 진행한다.

이번 ‘현대음악 편’에서는 유연한 카리스마 지휘자 백운학의 지휘로 아이브스의 ‘대답없는 질문’, 윤이상의 ‘실내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단편’, 존 케이지의 ‘4분 33초’ 등 다양한 갈래의 현대음악을 감상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뮤직도슨트와 연극배우 그리고 관객이 함께하는 역할극을 통해 ‘현대음악은 난해하고 어렵다’는 명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날 음악회의 지휘봉을 잡는 지휘자 백운학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지휘자 중 한 명으로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대구시향 등을 객원지휘 했으며 2006년부터



백운학 지휘자 배우 이영환

TIMF 앙상블과 꾸준히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배우 이영환은 KBS2 드라마 ‘복희누나’, 연극 ‘나의 살던 고향’, ‘리어왕’, ‘닥터 지바고’, 등 다수의 드라마와 연극, 뮤지컬 작품에 출연했다. 2014 광주연극제 ‘신인연기상’과 2017 한국연극협회 ‘젊은 연극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극단 사람들 사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티켓은 전석 1만원(학생 50%, 만 7세 이상)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정겨울 기자

##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121> 육십사괘 해설 : 30. 이위화(離爲火) 中

### “이작연 경지무구(초구), 황리 원길(육이), 일측지리 대질지차 흥(구삼)”

〈履錯然 敬之无咎, 黃離 元吉, 日昃之離 大耋之嗟 凶〉

이위화(離爲火)괘의 초효는 ‘이작연 경지무구’(履錯然 敬之无咎)다. 즉 ‘밝아 나아감이 어지럽게 섞여 있어 판단이 안서니 신중하게 공경하면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작연’(錯然)은 ‘어지럽게 섞여있는 모양으로 아직 어둠과 판단이 안서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작연의 ‘이’(履)를 ‘밝을 이’(離)로도 봐 밝음이 섞여 있어 아직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이를 신중히 공경하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상전에서는 내괘의 이(離)를 오늘의 하루, 외괘의 이를 내일의 하루로 본다. 초효에 있으니 새벽으로 아직 해의 빛이 충분히 지상(地上)을 비추지 않은 때로 상황이 확실하지 않고 판단이 명료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때를 기다렸다가 밝아진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잘못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효사의 의미다. 이괘(離卦)는 감괘(坎卦)와 모든 점에서 대조적이다. 감괘에서는 감(坎)을 강중(剛中)을 가지고 형통한다고 하고 음유(陰柔)로 구멍에 빠진다고 봤지만 이괘에서 이(離)는 이와 반대로 암소를 기르는 것이 길(吉)이고 양강(陽剛)이면 잘못을 일으킨다고 본다. 구삼과 구사, 상구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양강으로 잘못을 일으킨다고 본다. 이괘 초효 역시 양강의 효로 올바른 위치에 있으니 신중히 하는 것이 허물을 피할 수 있다.

| 이지에離之旅 初動 |     |
|-----------|-----|
|           |     |
| 이위화       | 화산여 |

득괘해 초구를 얻으면 초효는 아직은 해가 밝지 않은 어두운 상황으로 방점을 정할 때가 아니니 모든 일에 있어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된다. 무슨 일이나 둘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2효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운기는 무슨 일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움직임이 있지만 기운이 무르익지 않았고 힘도 갖춰지지 않았으니 앞날이 확연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업, 거래, 교섭, 담판 등도 상대방을 잘 파악해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거나 보증을 서거나 해 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있다. 물건의 가격은 고가(高價)로 잠시 유지된다. 바라는 바 역시 아직 시기상조(時期尙早)이다. 혼인은 일단 상대의 미모에 반해 추진하려 하나 잘 되지 않고 성사된다 해도 외면은 보살, 내면은 밤의 악귀인 야차(夜叉)인 사람들이다. 임태는 아직은 때가 안돼 어려움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아 온다 해도 늦게 온다. ‘바람 피는 여부정’에서는 이(履)와 착(錯)의 자의(字意)로 신발이 섞여 있으니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고 여행시에는 남을 공경하고 몸을 낮춰야 한다. 가솔인은 망설이다가 나왔지만 가야 할 곳이 확실하 정해지지 않았고 앞날을 상당히 걱정하면서 가까운 데에 있으니 시일이 경과하면 멀리 간다. 분실물은 분실한 장소와 경로가 확인하지 못해 찾기 힘들고 밖에서 잃어버린 것은 찾기 힘들다. 병은 이열(離熱)로 인해 다리를 쓰기 어렵거나 신경계통, 정신착란, 독한 감기로 인한 전신마비 등이나 초효이니 빨리 치료에 힘을 쓰면 낫는다. 날씨는 맑고 밝은 날씨가 황사현상 등으로 흐린다. [실점예]로 ‘모인의 향후 사업 길흥점’에서 초효를 얻고 점고하기를 “이괘는 불이 일어나 밝아져 가는 폐이나 지금은 초효 ‘이작연’(履錯然)의 초기로 어려운 시기니 신중히 추진해 가면 앞으로 불처럼 사업은 번창하고 상하괘가 모두 불이니 사업장은 두 개가 된다”고 해 역시 그러했다.

| 이지도유離之大有 二動 |      |
|-------------|------|
|             |      |
| 이위화         | 화천대유 |

육이의 효사는 ‘황리 원길’(黃離 元吉)이다. 즉 ‘누렇게 해가 떠서 밝으니 크게 길하다’는 뜻이다. 초효의 이(離)는 새벽에 뜨는 해이고 육이의 이(離)는 중천(中天)에 떠 있는 정오(正午)의 태양이다. ‘황’(黃)이란 색은 해의 색이고 불의 색으로 육이의 위치에 있으니 중앙의 색이며 육이는 곤중(坤中)의 땅으로 유순중정(柔順中正)의 효이다. 정오의 태양이 중천에 누렇게 떠 있으니 만물을 다 비취 주니 크게 길하지 않을 수 없다. 단사(象辭)에서 ‘축빈우길’(畜牝牛吉), 단전(象傳)에 ‘유중정려’(柔中正麗)를 가지고 존비하는 것이 육이니 상전(象傳)에서 말하길 ‘정오의 태양이 크게 길한

것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 ‘황리원길 득중도야’(黃離元吉 得中道也)라 했다. 육이를 얻으면 가장 좋은 운기의 물결을 타고 있는 시기로 시의(時宜)에 부합돼 이득이 크고 기대 이외의 예상치 않은 행운(幸運)을 누릴 수 있다. 지금은 운기의 정점(頂點)이나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서둘러 기초를 다지거나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시켜야 한다. 사업, 거래, 교섭 등을 비롯한 바라는 바 모두가 이뤄져 자신의 생각한 바대로 성사되지만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따라서 나아가면 한층 더 좋다. 물건의 가격은 비싼 시기이니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팔아야 할 때이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오래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혼인은 길하고 특히 여자를 맞이하는 남자를 위한 점에서는 대길(大吉)이다. 임태는 무사하지만 예정보다 늦어진다. 기다리는 것은 소식이 있고 가솔인은 돌아오며 분실물은 찾을 수 있다. 병은 열병, 장티푸스 등 전염병으로 목숨이 위험하다. 날씨는 맑고 해가 뜨겁다 떠 있다. 1988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결과 여하점’에서 육이를 얻고 점고하기를 “효사에 ‘황리원길’(黃離元吉)이라 했으니 정오의 태양으로 마라톤에서 왕으로 등극(登極)한다. 이괘는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으니 왕의 후계자가 된다” 역시 그러했다.

| 이저서함離之噬嗑 三動 |      |
|-------------|------|
|             |      |
| 이위화         | 화뢰서함 |

구삼의 효사는 ‘일측지리 불고부이가 즉 대질지차 흥’이다. 즉, ‘해가 기울어져 서산에 걸려있다. 장군을 두드리고 노래하지 않는다. 이는 즉 나이 먹은 노인의 탄식이니 흥하다’는 뜻이다. 구삼은 내괘 이(離)의 끝이고 하루로 말하면 해가 질 무렵이며 인생으로는 일대(一代)가 끝나는 팔순에 다다른 노쇠한 노인이다. 이것을 ‘일측지리 대질’이라 했다. 이괘의 해가 육이에서 중천에 떠올랐다가 이제 구삼에서는 지는 때이다.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의 황금기가 지나고 노년에 들었으니 이는 천명(天命)이고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어 술을 마시면서 술동이를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는 낙천성을 가져야 하는데 잔란했던 육이의 시절이 그리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불고부이가 즉대질지차 흥’이라는 효사의 의미다. 구삼은 양위에 양효가 있어 기량이 강하니 더욱 천명을 받아들이지 못해 아직도 젊음을 불태우려고 하고 늙은 것이 슬프다고 하니 그것은 흥인 것이다. 이를 상전에서는 ‘일측지리 하가구야’라 해 ‘어찌 그것이 오래갈 것인가’라고 말한다. 즉 어차피 인생의 해도 지려고 하는데 슬퍼하고 탄식할만 어쩔 수 없으니 차라리 복을 치고 노래하는 낙천지명(樂天知命)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은가! 득괘해 구삼을 얻으면 사업, 거래 등은 종말로 내리막길이니 일단락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매듭을 짓지 못하거나 분외의 일을 손대면 실패한다. 운기도 은퇴할 때이고 바라는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변괘가 서함으로 방혈, 장애가 있어 탄압하라. 물건의 가격은 높은 데서 급변동의 조짐이 있다. 혼인은 성사시키려고 노력해도 상대가 반응이 없다. 설령 이뤄져도 상대가 미모이나 병신이거나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후에 생사별(生死別) 등 쓸쓸하니 보류하는 것이 좋다. 임태는 산부의 기력이 약해 끝까지 견디지 못하니 충분한 체력,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 기다리는 일은 소식이 없고 가솔인은 나라도 방해를 받아 초연해 돌아오는 일이 있으며 분실물은 찾아 해마다 찾을 희망이 없다. 병은 노쇠하거나 극단의 쇠약에 빠져 회복이 느리고 양분(養)해 다리, 허리 움직임도 고통스러워 위험하다. 날씨는 맑은 날씨에 갑작스런 변화가 많다. [실점예]로 원고가 ‘소송의 성패 여하’를 물어 육삼을 얻고 점고하기를 ‘상괘(體)는 지는 해, 하괘(用)는 뜨는 해이니 소송의 상대가 진다’고 해서 역시 그러했다.

/동인주역명리학당(062-654-4272)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 삼계탕, 소꼬리곰탕

한정식 1인: 2만 5천원부터 ~ 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의 새로운 운영자를 찾습니다!

문구생활·편의Shop - **Alpha** 광주보건대점 T 263-4993  
www.alpha.co.kr

**복사제본**  
인쇄·문구·전산 남품전문

**매각 합니다**  
보증금 - 3,000 만원  
물 품 - 3,000 만원  
기 계 - 2,500 만원  
권리금 - 2,500 만원  
**1억 1,000 만원**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 | 문의 : 010-4821-8929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55 보건대점문